오계수지해야 신도자격 준다

조계종 '신도법 제·개정 기본안' 확정

입교 신도교육 수계의식 등 정비

공청회·여론수렴후 7월 종회 상정

조계종 신도의 입교(등록) 및 교육, 수계, 조직, 활동 및 자격 등을 규정하는 '포교 및 신도관련 종법 제·개정 기본안'이 확정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9일 포교원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포교·신도관련 종법 제·개정을 통해 건강한 신도 양성과 명실상부한 사부대중의 공의에 의한 청정·화합 공동체를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몇 년전부터 신도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행체계화 연구', '신도교육의 해' 지정을 통해 신도교육을 종단의 주요 종책사업으로 지정했지만, 결국 '중앙종무기관 따로 현장 따로'라는 결과만을 확인한 채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번의 신도관련법 등의 제·개정은 제도와 현실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도 교육 및 관리의 체계화를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포교·신도관련법의 제·개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신도의 입교**=종단 차원의 통일적인 교육내용과 입교 의식을 통해 종단의 신도교육에 대한 통일성을 확립하고, 사찰에서는 새 신자를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함으로써 입교자가 사찰 및 종단에 대한 소속감을 갖도록 한다.

■ **신도등록 및 교무금**=△신도등록 사업이 신도의 교육 및 활동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신도등록 및 신도증 발급업무를 본말사로 이관하는 안을 적극 검토한다. △신도 등록 시에 신도증 발급비(실비)만 받고 별도의 교무금은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새롭게 제출하되, 현행 교무금 납부제도를 유지하는 안과 비교해 찬반여부를 묻는다.

■ **신도교육과 자격, 수계 및 활동**=△신도의 자격을 '5계 수지 후 등록한 신도'로 명시한다. △신도 기본교육의 의무화 △교육에 따른 신행활동 보장

■ **포교사의 위상과 역할 명시**=활동을 중심으로 일반포교사와 전문포교사로 구분함으로써 질적 향상을 꾀한다(현행 종법이 규정하고 있는 포교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각급 신도 임원이나 종무직에 대한 조항을 엄격히 적용).

■ **전교사 제도의 신설**=신도의 지도자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하며 활동의 장을 보장(활동비 지급)하는 '종단상임포교사'와 같은 전교사 제도를 신설한다.

■ **신도회 및 신도단체 관련**=△사문화된 신도법 제25조에 의한 지역 신도회 규정의 폐지 △신도법 제 39조 지역단위 신도연합단체에 대한 조문을 개정해 실질적인 활동력을 갖게 한다.

포교원은 포교 일선 주지스님과의 간담회(15일), 각급 신도회 및 신도단체 임원과의 간담회(16일), 전국 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25일), 불교교양대학 대표자회의(7월1일), 종합공청회(7월10일, 종회 포교분과위와 공동 주관), 설문조사(6월10일~7월3일)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중앙종회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신도교육과정>

구분 \ 단계	기본	전문	지도자
주관	사찰 및 지역교육기관	인가교육기관	종단
조건	의무	신행경력 2년이상 5계 수지자	전문교육이수자 또는 보살계 수지자
목표	기초교리및 수행법 이해, 불자로서의 삶을 익힘	교계 및 사회에 봉사하는 불자 양성.	다른불자들의 신행을 이끌고 지도할 수 있는 불자 육성.
교육내용	부처님의 생애, 기초교리, 신행의 의미와 방법 신도의 권리와 의무 사찰의 구조와 의미 ※교재:불교입문, 수행지침서(발간예정)	교리전문(深化), 수행전문(實修), 응용전문(실천) ※교과과정 기준제시 ※3개 전문영역을 포괄치 못하는 등록교육기관의 경우 1개 코스로서만 인정	교리 및 수행 심화, 신행지도 방법등 해당목적에 맞는 집중심화 교육및 1년간 활동점검-비상설 교육기관(종법상 향후 포교사대학 설립)
기간	3~6개월 30시간 이상	2년 120시간 이상	1년 60~130시간 전문코스 개발
수료후 자격 부여및 활동	5계수지 신도등록 신도회 및 개별 신도단체 임원	보살계수지, 포교사고시 응시자격, 각종 봉사활동, 신도회 및 신도단체 임원 활동	전교사(신설) 신도교육 및 신행지도 담당

◇기자간담회 참석한 종단대표들. 오른쪽부터 진각종 통리원장 성초 대정사,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 조계종 종회의장 법등스님, 교육원장 일면스님, 포교원장 정련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조불련대표 서울초청의향 있다"

고산스님 4일 금강호 선상서 기자회견

민족의 화합과 나눔을 위한 불교도 금강산 순례를 이끈 종단협의회 회장 고산스님(조계종총무원장)은 이번 순례의 취지를 "불교의 자비사상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었다"며 "각 종단의 대표와 신도들이 북녘땅 금강산에서 한마음으로 통일을 발원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고산스님은 4일 금강산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현대금강호 선상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후 남북불교교류에 대한 방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신계사 복원이 추진되고 있는데, 경과는?

▲남북이 합의하면 올 늦가을쯤 기공식을 거행할 계획이다. 신계사 복원을 위한 남북공동 학술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고산스님의 북한방문을 추진하고 있는데.

▲8일부터 불추위 대표단이 방북해 조선불교도연맹과 북한 사찰의 복구와 나의 방북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의 불교도 금강산 순례를 평가한다면.

▲성과는 대단히 크다. 각 종단 대표와 신도 1천1백여명이 참가해 북녘땅 금강산에서 한마음으로 통일을 발원했다. 이후 남북불교교류도 원만히 진행될 것이다. 이번 순례로 조성된 기금(약 1억원)은 불추위와 협의해 비료보내기 성금과 합쳐 (방북해)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이번에 모시고 온 금동불과 5존괘불도는 언제 전달할 계획인가.

▲내가 직접 북한(조불련)의 초청을 받아갈 때 전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북한불교 대표를 초청할 의향은.

▲불추위 대표단과 조불련이 만난다. 틀림없이 나를 초빙할 것이다. 좋은 일 있으면 그분들을 서울로 초청할 생각이다. 그러면 잘 될 것이다.

한편 조계종 종회의장 법등스님은 남북불교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앙종회의 지원방안을 묻는 질문에 "종회는 입법기관이므로 종단 행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총무원장 스님의 염원을 받들어 뒷받침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교육부 '승가대 정원동결' 제재

총동문회 '위기상황' 규정…김포학사 6월 준공 난항

한국의 나란다대학을 자임하는 중앙승가대가 정규대 인가조건을 불비해 교육부로부터 제재를 받는 한편 김포학사의 6월 준공이 예산 및 준비부족으로 늦춰지는 등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중앙승가대 총동문회(회장 원종)가 지난 2일 제6차 회의에서 '현 학교 상황이 위기상황'이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인 것도 이같은 어려움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날 총동문회장이지 중앙승가대 기획실장인 원종스님은 지난 5월12일 교육부의 '99대학설립인가조건 미이행에 따른 행정제재 및 이행촉구 지시'와 관련 "중앙승가대가 정규대로 승격하는 조건으로 교수를 20명이상 확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해 교육부로부터 2000년도 대학정원 동결 제재조치를 받았다"면서 "올해 안에 교수를 3명이상 충원하지 못할 시 대학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학생모집 중지 등의 추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기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원들의 처우를 높이는 한편 교수평가제를 도입해 교원들의 강의나 연구를 독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김포학사로의 이전시 운영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종단지원금을 2억여원 정도 인상하고 개운학사를 활용하며, 재정후원 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인 사무처장 등 핵심부서장의 공석으로 행정상의 공백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포학사 신축공사 현황에 대해 법인 실무자는 "현재 68%이 공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상수도의 원인자 부담금 7억여원을 납부하지 못해 상수도 공급이 준공 때까지 어렵고, 도시가스 공급과 교통영향 평가를 제때에 받지 못해 6월중 준공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같이 6월말까지 김포학사의 준공이나 이전이 안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각종 기계 및 배관, 보일러 등의 가동과 압력테스트 시험가동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기계설비의 부식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기계 수명의 단축과 운용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시공업체인 풍림산업의 하자보수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직원(기계 전기 건축 경비 등)이 상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해당 부서 책임자가 공석인 관계로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교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직원 인력 재배치와 효율성 제고의 과제를 안고 있는 중앙승가대가 예산부족과 준비소홀로 김포학사로의 이전불사에 차질을 빚지 않을지 우려된다. 중앙승가대의 자구노력과 함께 조계종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목어

지하철에서

지하철은 조용하다. 피로와 긴장이 자아내는 어색한 침묵. 그런데 그 공간을 두드리는 소음이 둘 있다. 하나는 전도사들의 기계적 쇳소리다. 그들은 당당하게 녹음된 복음(?)을 틀어댄다. 나는 다짜고짜 타인의 공간 속을 침범하는 무뢰한들을 두고 보지 못한다. 그게 아무리 위대한 진리라고 해도 그렇다. 참다가 소리를 질러 보지만 못'들은체 계속 떠들거나 슬그머니 자리를 옮긴다.

또 하나는 잡화를 소개하는 상인들의 목소리다. 그들은 겸연쩍게 가방 속에서 물건을 꺼낸다. 팔고 있는 상품(?)의 종류는 다양하다. 무슨 본드류, 칫솔, 목욕제품, 비옷 등등. 조잡한 물건을 들고 최신기능과 기술혁신을 자랑할 때는 슬그머니 웃는다. 가끔 사기도 한다.

물건 값은 천원짜리 한 장, 많아도 두 장을 넘지 않는다. 당연한 일이다. 더 비싸지면 아무도 사지 않을 테니까.

지하철의 공간은 철저한 익명과 우연의 공간이다. 그곳의 신뢰지수는 제로에 가깝다. 비옷이 찢어져 있어도 웃고 말 사람이나, 본드가 잘 붙지 않아도 그냥 욕하고 버릴 각오가 된 사람들이 지하철의 물건을 산다. 속는 셈치고 지갑을 여는 것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속는 셈치고'의 수준으로 천원짜리 한 장은 너무 낮지 않은가. IMF라곤 하나 우리 경제규모와 소비수준은 옛적 보릿고개 넘던 시절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그때보다 더 각박해졌다. 여러 이유를 댈 수 있다. 조직의 규모가 크고 다양화되었다는 등, 익명성과 위험이 확산되었다는 등. 그러나 결국 변명일 뿐이다. 근본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 불신을 확산시킨 주범은 네가 아니고 바로 나다.

그 독을 치유하자면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구체적 방안으로 '속는 셈치고'의 수준을 높여가면 어떨까. 가령 지하철에서 파는 만원짜리 물건을 눈감고 사준다. 만원 정도라면 속아주지 했던 사람들은 십만원 정도로 수준을 높인다. 그 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생산의 효율을 높이는데 그치지 않는다. 심리적 여유가 커지는 만큼 사회속에 팽배한 이기심과 적대감도 따라 무장해제되어갈 것이다.

한형조(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본지 논설위원)

해인골프장 관련 주요 일지

90년	성주군, 가야개발을 가야산국립공원 개발사업주로 지정
94년 12월	경상북도, 해인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95년 4월	주민 등 해인골프장 승인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청구
95년 7월	문화체육부, 해인골프장 사업계획 취소 결정
95년 8월	가야개발, 서울고법에 문체부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제기
96년 6월	서울고법, 취소처분 취소 판결
96년 7월	문체부, 대법원에 상고
96년 9월	해인골프장 건설 반대 범국민대책위 결성
97년 10월	백만인 서명운동 백만명 돌파
97년 12월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가야개발 승소)
98년 12월	가야개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사업시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98년 12월	국립공원관리공단, 연장허가 거부
99년 2월	가야개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99년 6월	해인총림대책위 등 12개 단체, 대구지법에 해인골프장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 제기

깊은마음·참나

'99 쌍계사 여름 수련법회 안내

장활하게 흐르는 쌍계활수와 산허리에 이는 맑은 바람은 지친 우리들의 육신을 맑혀주고, 붓다의 말씀과 조사스님의 활구는 나약한 영혼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동참하여 「깊은 마음·참나」를 찾아보시지 않겠습니까?

행사일정

	기 간	정 원	대상
1차	7월 29일(목) - 8월 1일(일)	남30명, 여30명	일반인
2차	8월 3일(화) - 8월 6일(금)	남30명, 여30명	일반인
3차	8월 7일(토) - 8월 8일(일)	100명	초등학생

동참안내

⊙ 수련법회 신청대상(3박 4일) : 일반인
⊙ 자원봉사 신청대상 : 수련법회 참가 경험이 있는 분으로 매 차수별 6명 내외
⊙ 신청마감일 및 참가통보 : 신청마감일은 7월10일(토)까지이며,
참가 통보는 7월15일(목)까지 동참 가부를 개별통지해 드립니다.
⊙ 동참금 : 일반인 6만원(교재, 기념사진 포함) ※ 초등학생은 무료

참가신청 방법

별도의 참가신청서는 없으며, 아래의 기재사항을 A4용지에 기재한 후 우편이나 팩스(FAX)로 신청하십시오

① 이름(한문, 한글)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우편번호 기재) ④ 직업(구체적으로)
⑤ 전화번호(직장,자택) ⑥ 종교
⑦ 원하는 차수(상기 일정표 참조) ⑧ 참가하고자 하는 이유

※팩스로 신청하실 때는 접수 후 전화 확인 바랍니다.

문의처

전화 0595)883-1901-2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 팩스 0595)883-6084

접수처

쌍계사 여름 수련법회 담당자 (우) 667-208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8번지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본사 쌍계사 주지 도리천 합장